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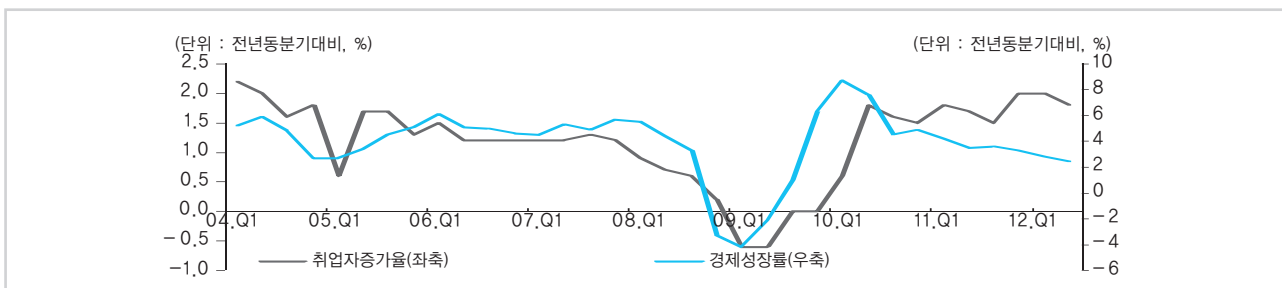
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

임진 (연구위원, 3705-6355)

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와 비동조화(decoupling)하는 특징을 보임.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취업자수 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. 따라서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-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됨.
 - 2004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은 경기에 대체로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흐름과 비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임.
 - 금년 2/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.4%로 작년 3/4분기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수는 2/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.8%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.

〈그림〉 취업자수증가율과 경제성장률



자료 : 통계청

- 금년 2/4분기중 취업자수 증가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,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에,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 집중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3.1만명 증가함.
 -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년동기대비 49.0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수도 작년 4/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작년 2/4분기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 -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각각 37.8만명 및 17.3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·일용직 근로자는 9.8만명 감소함.
 - 연령별로는 50대 및 60세 이상이 각각 27.5만명 및 25.1만명 증가하였으나 15~29세는 3.0만명, 30대는 0.7만명, 40대는 1.9만명 감소
 - * 50대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



-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경기역행적 고용 증가는 가구주의 소득감소,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및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됨.
 - 최근의 고용 증가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, 중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남.
 - * 지난해 4/4분기 이후 구직단념자가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상승함.
 - 특히 50대 여성들이 자녀 교육비,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건·사회복지, 사업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임.

-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, 영세자영업 등 불안전취업 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됨.
 - 고용탄성치를 적용하는 경우 성장에 기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는 금년 상반기중 20만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5만개 정도로 추정됨.
 - 이는 기업들의 노동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수요 증대를 정규직 채용 대신에 고용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,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대응하면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한 데 기인함.
 - 또한 제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영세 전통서비스업으로의 전직이 확대됨.
 - *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1년 8월 이후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10만명 이상 증가함.
 - *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지만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남성, 여성이 각각 70.3세 및 69.8세(04~09년 평균, OECD)로 상당수가 퇴직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은 노동 수요 및 공급 요인으로 인해 최근의 취업자수가 50세 이상을 중심으로,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, 자영업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경기와의 비동조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
 -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취업자수 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.
 - * 금년 2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(1955~1963년 출생자) 인구 중 상용직 근로자는 194만명인데 평균 퇴직연령 53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20만~25만명 정도가 퇴직 후 재취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당분간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고용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성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될 우려
 - 향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경우 고용취약계층은 실업상태에 있기보다는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고용률이 실업률에 비해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

- 앞으로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.
 -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판로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긴요
 - 녹색기술, 첨단융합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(hidden champion)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필요
 -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유휴인력이 고용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, 적합한 일자리 발굴·추진, 취업교육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주력할 필요 **KIF**